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2년 10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나무와 열매, 집짓는 사람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1장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1절을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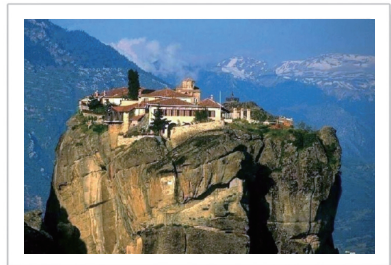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소서.
-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이끄심을 느끼게 해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6장 43-45절, 47-4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따름으로써 성공하거나 실패한 일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어떠한 일을 당장 실천하여 좋은 결실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어떤 일을 하는데 즉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에 대해 서로 얘기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조안 리의 저서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에는 샌프란시스코 최대 갑부 줄리어스 메이 이야기가 나온다. 유럽에서 크게 성공한 로스차일드사는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지점을 내기로 했다. 어느 날 사장이 지점장 물망에 오른 한 직원을 불러 “떠나기 전에 준비 기간이 며칠이나 필요한가?” 하고 물었다. 직원은 깊이 생각하더니 “열흘쯤 걸리겠다.”라고 대답했다. 뭔가 성에 차지 않은 사장은 다른 직원을 불러 물었다. 그 직원은 “사흘쯤 걸리겠다.”라고 대답했다. 그래도 여전히 성에 차지 않은 사장은 직원을 한 명 더 불러 물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대뜸 “지금 당장 떠나겠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사장은 “좋아, 자네가 오늘부터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일세.” 하고 말하며 만족스럽게 악수를 나눴다. 이 세 번째 직원이 바로 줄리어스 메이였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를 부릅시다.

궁금했어요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이라서 기도 중에
자꾸 지루해지고 따분해집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묵주기도의 단순성이야말로 대중 신심을 이끄는 최고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자매님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기는 단순한 기도문 속에는 신학적 깊이를 갖춘 매우 다채로운 관상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때문에 묵주기도에 대한 바오로 6세 교황님의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관상이 없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아서 기도문만 반복하는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라는 일깨움이 자매님의 마음을 확 깨어나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는 본질상 고요한 운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느릿한 속도로 바쳐야 합니다.”라는 당부처럼 천천히 기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등신 빛으로 빛을 보옵나이다.
시편 36,10

아울러 우리가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은 빨리 외워서 얼른 묵주알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빠르게 재빨리 묵주알을 돌리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묵주는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주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신비의 도구입니다. 묵주기도에 앞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묵주기도에는 언제나 성모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곁에 계신 그분을 느끼기 바랍니다. 어찌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겠습니까?



성호경을 긋는 일부터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그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여 찬미하는 열린 영혼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소곤소곤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장재봉 신부)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의 공동체

-반송성당 롯데구역 소공동체-

- 남미리 아타나시아(반송성당 롯데구역 소공동체)

저희 반송성당 롯데구역 소공동체는 창원 롯데아파트에 사는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 기업에 근무하는 분, 선반사업을 하는 분, 전기공사사업을 하는 분, 대학교수, 은행에 다니는 분, 연구소 연구원, 학교교사, 한의사부부, 가사를 돌보는 분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각기 다른 장점과 특색으로 풍성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면서 롯데구역 소공동체는 어느 자리보다도 편안함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남성소공동체를 하는 날이면 롯데구역이 들쭉들쭉해집니다. 형제님들의 모임이지만 자매님들은 소공동체 주최 가정을 돕는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모여 롯데구역 전체모임이 되기 일쑤입니다. 나눔을 하시는 형제님들의 진지함에 자매님들도 덩달아 진지해지기도 하고 소공동체 모임이 끝난 후 다과를 나눌 때면 형제님들은 사회안의 어떤 만남보다도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다양한 삶의 이야기보따리들을 풀어 놓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이런 편안함이 때문인지 신자 자매의 외인인 남편과 신앙생활을 십수 년간 쉬고 있던 형제님들도 참여하게 되고, 그런 지속적인 만남과 관심을 통해 지난 성탄에는 두 명의 쉬고 있던 형제님들이 신앙을 회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매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소공동체는 두개의 반으로 되어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자매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1, 2단지를 통합하여 오전시간이 자유로운 분들은 오전에,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늦은 저녁시간을 이용해 소공동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 반을 맡으신 미카엘라 반장님의 남다른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

데, 다음달부터는 쉬는 주말에 직장인모임을 가져보기로 하였습니다.

여성소공동체도 남성소공동체 못지않게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들을 신앙의 길로 초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만난 자매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준 유스티나 자매님, 한 아파트에서 알고 지내던 자매를 신앙의 길로 이끌고 예비자 교리마다 함께 참석하여 영세 때까지 성실히 돌보아준 미카엘라 자매님이 그렇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번 부활에는 유아세례를 포함하여 3명의 새 신자가 저희 구역에서 탄생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저마다 삶의 현장에서 작은 배려와 사랑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홀로되신 분들의 마음에 혹시나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여 매일미사를 오고 가실 때마다 멀리 거리를 두고 걸으시고 자리에도 함께 앉지 않으시는 마음씨 착한 마리아와 요셉 어르신 부부, 신앙을 반대하시는 시어른을 잘 섬기며 언젠가 싹이 틀 희망을 가지고 신앙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는 예쁜 루시아 자매님, 항상 밝은 미소 명랑한 말들로 주위사람들 즐겁게 해주며 민들레 공부방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가정교리교사로서도 봉사하는 스콜라스티카 자매님, 주말부부이면서도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며 열심히 봉사하는 미카엘라 자매님, 기도하며 구역을 보살피는 소피아 자매님,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미사에 늦을 새라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매일미사를 거르지 않는 요세피나 자매님, 늘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마리아 고레띠자매님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날이 추운 연말이나 정월 즈음에는 합동으로 외식하며 소공동체를 하기도 하고, 걷기 좋은 봄이나 가을에는 함께 산행을 하기도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롯데구역 소공동체는 주님의 작은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자! 아자! 롯데소공동체 화이팅!!!!



〈반송성당 롯데구역 소공동체 반원들〉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